

해외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공단, 1순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 2순위에 '뉴욕 멜론 은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할 해외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해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공고문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제안서 접수와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2순위에 '뉴욕 멜론 은행(BNYM,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을 각각 선정했다.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각 기관은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은행들과 업무수행 관련 세부적인 기술 협상을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계약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 분산 및 투자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별 협상 과정을 거쳐 해외주식, 해외채권을 구분하여 수탁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담당 기관이 수탁 업무를 병행 수행한다.

2021년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872조 원의 38.9%에 해당하는 339.9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222.4조원, 채권 48.7조원, 대체투자 68.7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 원 도래를 앞두고 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하여 해외투자 확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의 보관·관리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출 전문가 무료상담 "여기서 하세요"

경진원 산하 전북 수출통합지원센터, 매주 수요일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오늘 중국 화장품·식품 위생허가, 14일 수출신고·무역서류 작성 등 진행

전북도경제성장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 산하기관인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매주 수요일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통상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및 전문가 활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변리사 관세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작성부터 중국 위생허가, 미국 FDA, 지식재산권 문제가

지 수출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을 매주 수요일 무료로 지원한다.

7월에는 ▲중국 화장품·식품 위생허가, 라벨링 (7일) ▲수출신고, 무역서류 작성, 국제운송 (14일) ▲미국 FDA 공장등록, 제품등록 (21일)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28일)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가 활용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라북도 수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안정적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도를 중심으로 도내 12개 수출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고, 전화 한 통으로 기업에 맞는 수출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대표번호: 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금융지원 전북지원
소상공 금융지원 협약 체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정기영, 이하 금감원 전북지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6일 전북중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지역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협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제 공동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금융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보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 후, 하반기부터 주요 정책 및 기업 애로사항 공문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물론, 현장 간담회·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금융 지원을 위한 별도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김제시 지부(지부장 김태곤)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6일 김제군농협(조합장 최승운)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기상특보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도내 전 지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 5일과 6일 사이 익산 지역이 최고 104mm를 기록하는 등 전북 평균 59.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6일 10시 현재 약간의 침수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재호 본부장은 현장을 점검한 후 "지난 비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맑게는 200mm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농업인 안전과 농업 관련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지역본부·시군지부·농협협의 영농지원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해 기상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농업인 대응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농업재해 피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6일 삼천동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서비스 특화점포 NH A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

고객자산관리 서비스 특화점포 '문 활짝'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삼천동지점서 'A100 센터' 현판식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6일 삼천동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서비스 특화점포 NH A100 종합자산관리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NH A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고객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된 점포로 일반 영업점보다 전문적인 부동산 및 세무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타행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농협은행의 고객층을 위한 '배움터'를 추구하고 있다.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은 고객들에게 더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월에 걸친 환경개선공사로 지난 6

월 28일 새롭게 단장하고 전 창구를 상담 창구화하는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금융MBA WM과정' 및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 최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컨설팅 실무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역 종합자산관리 분야 거점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최상의 고객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특정 음파 처리, 식물 성장에 도움

애기장대 종자에 처리한 결과 뿌리 길이 길어져
식물호르몬 옥신의 생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량 ↑
국제분자화학학회지에 논문 게재 · 특허등록 완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특정 음파를 처리하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식물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볼 수 없는 색깔의 파장까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오감을 능가하는 다양한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음파를 이용해 수확한 토마토 열매의 익는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리를 과학적 규명하는 등 음파를 이용한 농업형질 개선 기술을 연구해 왔다.

연구진이 모델(본보기) 식물인 애기장대 종자에 특정 단일(single) 또는 복합(dual) 음파를 처리한 결과, 뿌리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확인했다. 식물호르몬인 옥신(auxin)과 사이토키닌(cytokinin)은 식물의 생장·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옥신의 비율이 사이토키닌보다 높은 경우 뿌리 생장이 촉진되지만, 낮으면 줄기 생장이 촉진된다.

특정 음파를 처리한 애기장대 뿌리의 생육이 촉진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옥신과 사이토키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옥신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은 높고 사이토키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은 줄었다.

또한 옥신을 전달하는 유전자 발현은 현저히 증가했고, 사이토키닌을 인자하고 전달하는 유전자 발현은 감소했다. 음파 처리한 애기장대 뿌리에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할 결과, 옥신 농도는 높았고 사이토키닌 농도는 낮았다. 이를 통해 특정 음파를 처리했을 때 유전자들의 발현이 조절되고 옥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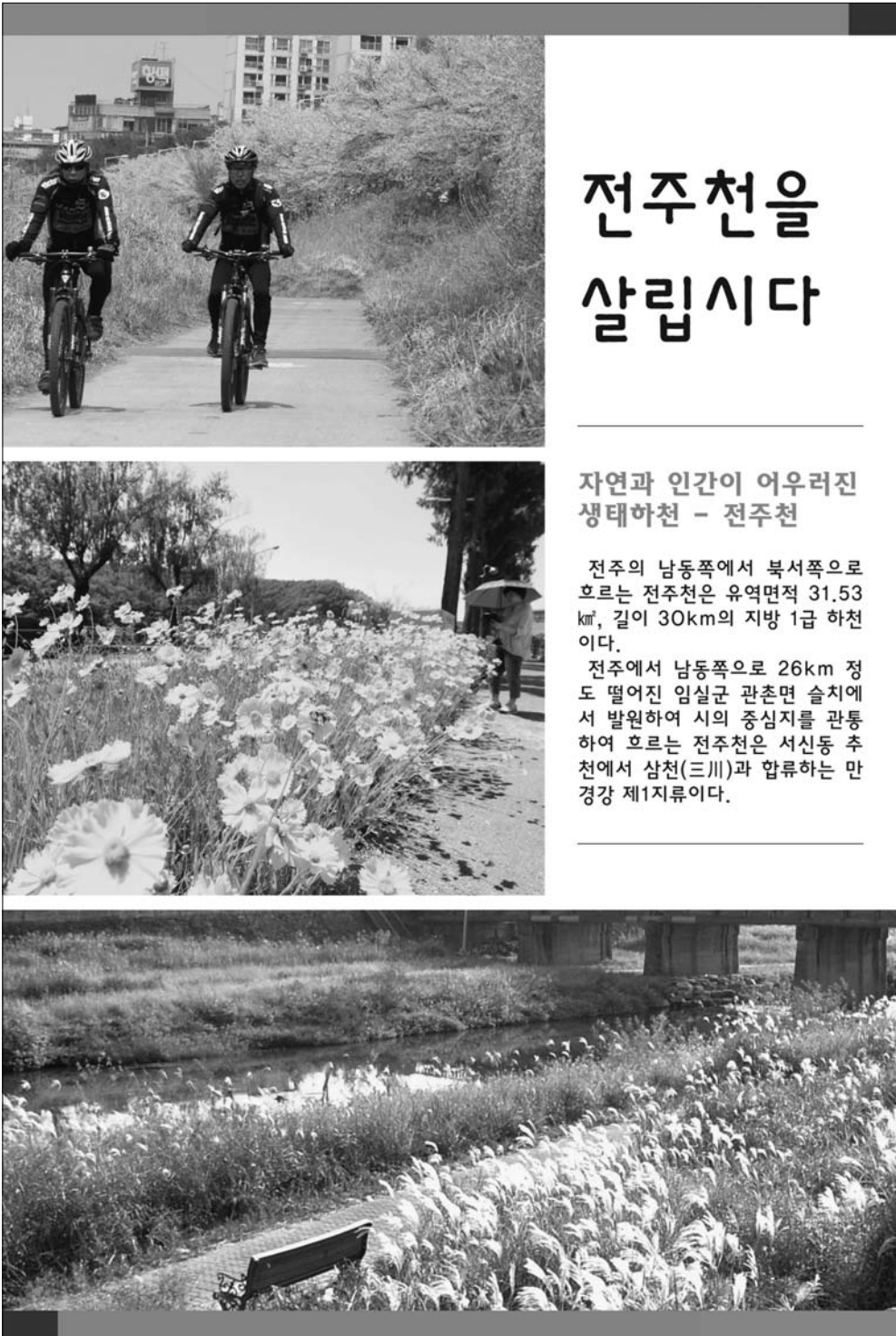
과 사이토키닌의 전달도 조절돼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세포분열이 촉진되고 세포 수도 증가해 뿌리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호박 종자에도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종자 발아 시기가 빨라지고 뿌리가 길어진 것이 관찰돼 음파처리에 의한 식물 생장 촉진 효과는 다른 작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종자에 음파 처리 시 뿌리 생장이 촉진되는 것은 식물의 성장 호르몬 체계의 변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을 통해 오래 유전자 도입 등 복잡한 과정 없이 유전자의 인위적인 발현 조절로 농업형질 개선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분자화학학회지(JMS, IF:4.556)에 논문 게재했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특정 음파처리에 의한 작물의 생장 촉진은 비료 사용 절감, 비료 남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효준 박사는 "농업형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전통육종은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음파처리 기술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번 연구로 음파를 재배 조건 중의 하나로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식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